

To be Global leaders by the Korean Language!

안녕

An-nyeong

우송대학교의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통권 제9호 | 2008 | 11 | 24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우송한국어교육원

2008 | 11 | 24 | 통권 제9호

Contents

차례

- 3 생각 | 권두언 / 이근태 우송한국어교육원 원장
- 4 새소식
- 7 특별게재 | 전국 외국인글쓰기대회 수상작 |
- 8 느낌 | 나의 한국 적응하기

발행인 이근태

편집인 김병로 부편집인 하재신

편집장 왕 흥 부편집장 증효용

편집위원 옥효가 호심 강웅 고운란 한우신 섭급룡 조성균

design 종려나무 Tel. 042)544-9333



선배 편집위원



신임 편집위원

좋은 습관으로 즐거운 유학생할 합시다

클 이근태
우송한국어교육원 원장

속담에 '습관은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먹고 자는 것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한 행동을 하더라도 반복할수록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습관에는 아침에 항상 늦잠을 자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밤이면 게임에 빠져서 밤 늦게까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또는 강의시간에 항상 지각하면서 시간에 허둥대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침 운동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또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는 사람, 강의 시간을 잘 지키면서 매일 어학공부를 예습 복습하고 반복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서 밤마다 게임을 즐기는 습관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다면 '한국어' 책을 보면서 쓰고 읽는 습관으로 바꾼다든지,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고 강의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밤에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여 자기의 습관을 바꾸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가 고치는 것은 자신의 인내와 고통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紅柿, a ripe persimmon)가 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학 생활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본인의 굳은 의지가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 가면서 알찬 유학생할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즐겁고 유익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밝고 명랑한 유학생할이 되기 바랍니다.

제2회 외국인 유학생 드림 콘잔치

Beyond Your Dream



외국인 유학생들의 젊은 끼가 연출한 폭발적인 열정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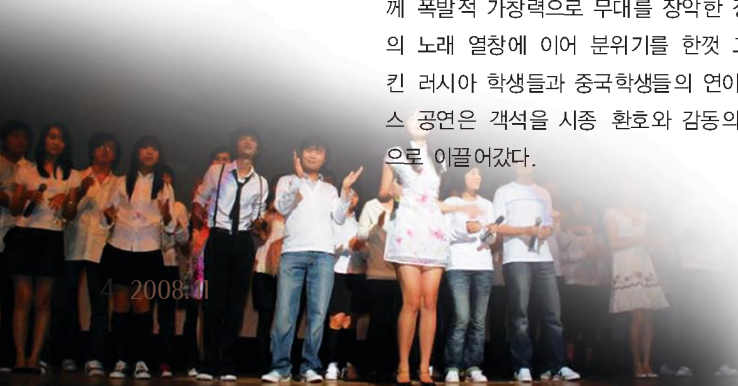
우송대 제3대 외국인유학생회(회장 : 기위)가 주최한 제2회 외국인 유학생 드림 콘잔치가 10월 13일(월) 오후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콘잔치는 우리 우송대에 유학 중인 1,100여 명의 젊은 외국학생들의 꿈과 열정이 맘껏 발산된 역동적 축제였다.

사회를 맡은 방서와 장연청의 유창하고 톡톡 튀는 한국어 말솜씨로 진행된 이번 콘잔치는 제1부의 다양한 노래와 춤 공연에 이어 제2부에서는 연극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1부는 무려 석월화 외 39명의 중국 학생들의 열정적 화음이 만들어 낸《北京欢迎你》합창이 콘잔치의 첫무대를 감동적으로 열었다. 이어서 베트남, 중국, 러시아 학생들이 각자의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열정적 무대를 화려하게 펼쳐 보여주었다. 특히 흥겨운 백댄서들과 함께 폭발적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한 장천천의 노래 열창에 이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러시아 학생들과 중국학생들의 연이은 댄스 공연은 객석을 시종 환호와 감동의 격정으로 이끌어갔다.

제2부에서는 한남대에서 주최한 외국인한국어말하기대회에서 수상한 오서 외 2명의《내가 세종대왕을 만난다면...》춘극 공연에 이어 랑조 외 18명이 참여한 연극《흥부와 놀부》가 배꼽을 잡게 하는 웃음과 해학의 무대를 연출해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특히 작년에 이어 이번 연극 공연도 한국어교육원 교수들의 헌신적 지도와 참여로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 교육적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공연이 끝난 후에는 이번 외국인 유학생들의 드림 콘잔치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 김선종 총장 외 학내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번 콘잔치는 유학생회를 중심으로 각국 일천일백여 명의 우송외국인유학생들이 하나가 되고, 그 각자의 꿈들을 이루어가는데 있어 한껏 힘을 북돋우어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국 외국인 말하기글쓰기대회(한남대 주최)에서 글짓기 2위, 말하기 3위 수상

_글짓기 2위 유정, 말하기 3위 오소, 동정, 당박진

10월 7일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주최한 제5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말하기글짓기대회에서 우리 우송대에 재학 중인 유정 양(국제경영4)이 뛰어난 한국어 글짓기 솜씨로 글짓기 부문 2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말하기 부분에서는 오소

(우송정보대 국제경영1), 동정(우송정보대 국제경영1), 당박진(우송대 국제경영3) 학우가 심사자와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 3위에 입상하여, 작년 제4회 이 대회에서의 글짓기 1위 입상에 연이은 좋은 성과를 올렸다.

전국 외국인 노래자랑 · 한국어 글짓기 대회 (한밭대 주최)에서 노래자랑



_‘금상’ 수상 : 장천천(뷰티디자인학과) 외 8명

11월 6일 한밭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 외국인 노래자랑에 출

전한 장천천 외 8명의 본교 학생들이 이효리의 'U-Go Girl'을 열창해 금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청중들을 압도하는 장천천 학우의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8명의 친구(안톤 외 7명)들이 보여준 흥겨운 댄스 안무는 관중들의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가을 속의 ‘에버랜드’에서 만든 추억의 시간들



우송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4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20여 인솔교수들이 10월 31일(금) 용인 에버랜드에

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일 오전 7시 30분에 10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려 조금 우려를 했지만 에버랜드에 입장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에버랜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으로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짜릿짜릿한 쾌감과 전율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는 장소이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과 문화공연 등은 다양한 볼거리와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날 우리 유학생들 역시 교육원에서 제공한 자유이용권으로 큰 담력이 필요한 짜릿한 놀이기구들을 타고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친구들과 즐거움에 넘치는 험박 웃음들을 사진에 담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오후 4시, 더 즐기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모든 유학생들이 다시 버스에 질서 있게 분승하여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6시쯤 되어서 무사히 학교로 돌아왔다.



우송한국어교육원 원장에 이근태 전 우송정보대학 학장 초빙

이근태 전
우송정보대
학장이 정
년 퇴임 과
동시에 이
번 2008년

9월 1일부터 우송한국어교육원 원장으로 전격 초빙되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그동안 오랜 동안 우송학원에서 학장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교육운영능력을 평가받은 이근태 원장을 초빙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된 교육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송한국어교육원 전임교직원 초빙 확대로 교육능력 강화

우송 한국
어교육원(원
장 이근태)
은 2008년
9월 학기부
터 교육 및

숙, 임근영 전임교원 7명은 각 팀의 교육 연구 업무를 분장하여 맡음으로서 우송한국어교육원의 교육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교육원 살림살이도 규모가 커진 만큼 교육행정 지원 체계도 보강되어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이용식 행정실장, 정세진 마케팅팀장, 윤주리, 박수현, 유민숙, 지다영 직원이 더욱 전문화된 업무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우송한국어교육원은 교육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고 계신 50여 분의 한국어전공 강사 선생님들이 본 우송학원에 재학 중인 일천사백여 명(솔브릿지 국제대학 포함)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 조직을 더욱 짜임새 있게 확대 개편하였다.

9월 1일자로 전임교원은 총 13분을 초빙하였다. 그중 임명옥 교육실장이 교육원의 교육 실무를 총괄하고, 김병로, 전연희, 이강록, 강지영 수석교원 4분이 핵심교과 강의 외에 연구, 교무, 학생복지, 학생문화행사 팀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재선, 윤남희, 윤지영, 이주리, 이소연, 최현

우송한국어교육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로 재지정

지난 2007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우송한국어교육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로 재지정되어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로써 본 한국어교육원은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든든한 교육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는 다문화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결혼이주민의 한국어교육은 물론이고 이주민 자녀들의 영어, 일어, 논술, 사회 교육 등과 같은 이중언어교육과 정체성 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한 다문화 관련 특강 등을 수시

로 열어 일선 초중등 선생님들과 다문화가족들에게 더욱 성숙된 다문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결과들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공동체 활동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11월 6일에는 본 교육센터의 우고바야시 케이교(일본) 씨와 구스다 아야코(일본) 씨가 한밭대에서 주최한 외국인 한국어 글짓기 대회와 외국인 노래자랑에서 각각 한글지킴상과 동상을 차지해 축하와 부러움을 받기도 했다.

취재작성 · 편집위원

| 특별게재 전국 외국인글쓰기대회 수상작 |

어머니들은 다이어트를 좋아한다

글 유정 국제경영학과 4학년

누구에게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한 분은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키워 주신 어머니다. 똥똥하든 날씬하든 예쁘게 생겼든 평범하게 생겼든 상관없다.

한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한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한국에서는 아줌마들이 가장 무서워” 그때는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 며칠 뒤 한국 아줌마들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줄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오자 내 뒤에서 있던 아줌마가 재빠르게 아이를 데리고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 아줌마가 옆에 있던 아이에게 “너 앉어, 엄마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냥 옆에서 있을게”라고 말했다. 다이어트? 그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이어트가 뭔지 몰랐다. 다행히 사건을 갖고 있어서 꺼내어 무슨 뜻인지 찾았다. 똥똥한 사람을 날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이미 날씬했다. “날씬한데 왜 다이어트를 해?”라는 생각을 했다.

생각하다 보니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생각났다. 바로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다.

한여름이었다. 햇빛이 사람을 잡아먹을 듯 강하게 내리쬘었다. 엄마가 퇴근하신 후 우리 유치원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집에 가려는데 나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라고 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먹는 게 사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엄마 월급이 얼마 안돼서 돈을 아껴 써야 했다. 그래도 엄마가 두 말 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 주셨다. 내가 한 입 물고 손을 내밀며 엄마에게 드렸는데 엄마가 손을 흔드시며 “엄마 안 먹어. 너 먹어라”라고 하셨다. 내가 “왜?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라고 했더니 엄마는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다.

이제 커서야 알게 됐다.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버스에 자리가 있어도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실지 나는 모른다.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나도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 나는 이제 어머니들은 왜 다이어트를 한

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깊게 알게 됐다. 바로 아무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비록 지금 한국에 유학 와서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며칠 전 일이었다. 학교 사무실에서 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하도 조용해서 받기가 아주 난감했다. 게다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라서 더 귀찮았다.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근로중입니다.”라고 하고 끊었다. 저녁 시간에 기숙사에 가는 길에 또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딱 받아 중국어로 “유정아!”라고 내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서야 엄마께서 전화해 주신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일주일이나 집으로 전화를 안 해서 엄마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셨다. 나는 그래도 농담으로 “엄마, 무소식은 회소식이야”라고 대답했다. 내 기운 있는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안심하셨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단 전화 한 통인데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이시다. 초조할 때에도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이시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해 드리고 싶다.

“엄마, 나 유학 생활 잘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 잘 하세요. 지금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내 눈에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예요. 엄마,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 이제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2008년 10월 7일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개최
전국 외국인 말하기글쓰기 대회 글쓰기부분 2위 수상작





가을

글 장사원 국제경영학과 2학년

일 년 내내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하고 풍경도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래서 기분 또한 변화해요. 지금은 가을인데 깊은 사색을 하게 되는 계절이에요.

절이에요.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물론 가을 외에도 봄, 여름, 겨울도 좋아하지만 사계절 중에서 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어릴 때에는 꽃이 피고 따뜻한 봄을 좋아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에 가기가 좋아요. 가을은 다른 색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겨울엔 눈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기가 재미 있어요. 하지만 여름은 덥고 땀도 많이 나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면 항상 머리가 아파서 걱정이예요. 겨울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춥거든요. 봄은 가을과 마찬가지로 날씨가 좋지만 항상 질려요.

가을은 시원하고 나뭇잎이 예뻐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도 많아서 아름다워요. 단풍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추석이 있는데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해요.

가을은 사랑에 빠지기 쉬운 계절이고 벤치에 누워있기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을 길을 거닐면 참 로맨틱해요. 하늘은 또 얼마나 청명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하늘은 가을 하늘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을은 슬픈 계절이기도 해요. 가을에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고 외로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슬픈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슬픈 시간 뒤에 찾아오는 기쁜 시간들이 더욱 가슴 벅차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래서 가을은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켜 주는 좋은 계절이에요. 이번 가을도 나는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여러 나라 학생들과 배우는 즐거운 한국어

글 이문균 뷰티디자인과 3학년

저는 올해 8월 달에 22년 동안 생활해 온 중국을 떠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 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우리들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언어, 생활 습관, 다른 환경 때문에 매우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후에 처음 받은 수업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 전에 걱정이 많아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한국어 선생님들은 매우 엄격하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우 친절하신 선생님 덕분에 저의 걱정은 점점 줄어들었고 긴장감 역시 사라졌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어 수업은 매우 즐겁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님

을 위해서라도 저에게 한국어 공부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한국 학생과 중국학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학생, 러시아 학생, 베트남 학생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공부를 하는 것 외에도 우리들은 여러 나라의 문화, 생활 등을 배웁니다. 우리 반에는 일본 학생과 러시아 학생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꼭 한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친구끼리 높임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기회도 되고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과 차곡차곡 우정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풍족합니다. 기숙사 생활은 매우 편안하고 수업 시간 외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특히 남자 친구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고향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한국은 가을입니다. 단풍도 예쁘고 가을 하늘도 푸릅니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이 신기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유학생생활은 매일매일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자! 아자! 우리 집중한국어 7반

글 장천 국제경영학과 2학년

우리는 집중한국어 7반입니다. 청춘의 활기가 충만한 7반입니다. 남학생들은 멋있고, 여학생들은 예뻐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은 예쁘고 친절해요.

두 달 전에 한국에 왔어요. 중국 효장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친밀한 친구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같이 국제경영 3반에서 공부했어요. 그동안 아주 즐거웠어요.

지금은 집중한국어 7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반 학생 모두 12명입니다.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9명입니다. 매일 우리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질문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따뜻하게 도와줘요.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시고 우리는 성실하게 들어요. 분위기가 참 활기차고 즐거워요.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생생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우리 반

선생님과 학생들 같이 학교 밖에 나가서 한국문화를 공부해요. 우리는 벌써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무용도 배웠고, 한국 전통음식도 만들었고, 한복도 입어보고, 붓글씨도 써 봤어요. 생생한국어 수업을 할 때 아주 재미 있어요. 우리 반 학생들 같이 열심히 하고 선생님은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생생한국어 수업덕분에 한국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생활에 많이 편안해 졌어요.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또 계속 한국어를 열심히 배울 거예요.

우리 반 제일 좋은 반이에요.

아자!! 아자!! 집중한국어 7반!!



성공하기 위하여

글 팜타이 국제경영학과 4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유학 온 팜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송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어를 조금밖에 알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 학기부터 한국어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이제는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한국 생활은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기저기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 민속촌하고 공주, 독립기념관 경복궁에 가 봤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주에서 열린 백제문화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국의 옛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독립기념관에 가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보면서 잠시 베트남의 아픈 역사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픈 기억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해장국과 불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국은 베트남보다 과일이 적고 좀 비쌉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 사과, 포도와 배를 마음껏 먹을 수 없어서 아쉽

습니다. 단 맛을 좋아하는 나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이런 과일을 매일 매일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에 적응한 나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한국 음식과 맛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꼭 열심히 배우고 한국영화를 보거나 한국음악을 듣고 한국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친구도 많이 사귀어야 한국어가 빨리 늘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꼭 하나씩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밝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보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사랑하면서 나의 세계를 넓혀 가야 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아자! 아자! 파이팅

마지막으로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집들이 문화

글 서징흠 영어학과 2학년

한국의 집들이는 이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집들이가 뭔가를 알고 체험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중국에 안 가서 한국어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의 집들이 문화를 경험했다. 한

국어교육원 마케팅실 정 팀장님이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날 퇴근 하자마자 조교 선생님, 실장님, 마케팅실 선생님 등 7명이 차를 타고 팀장님 택으로 갔다. 나는 팀장님이 무엇을 준비했을까 매우 궁금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신발을 벗었다. 맥이 참 화려하고 깨끗했다. 우리는 집을 구경했다. 공부방, 자는 방이 있고 거실이 아주 컸다. 거실에 피아노도 있었다. 냉장고에는 많은 음료수와 맥주, 소주가 있었다.

팀장님은 피자를 주문했다. 나는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물 피자는 좋아한다. 그리고 순대 닭다리, 야채샐러드도 먹었다. 조교 누나의 피자 먹는 모습은 아주 웃겼고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옆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었다. 정 팀장님이 피아노를 쳤다. 아주 잘 쳤다.

조교 누나도 한 곡 쳤다.

7시쯤에 한국어교육원의 이 선생님과 강 선생님께서 와인을 갖고 오셨다. 선생님들과 바닥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들은 즐겁게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알아 들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지만 한국어는 아직 많이 어렵다. 90% 이해 할 수 없다. 나는 옆에 앉아서 아는 척을 했다. 선생님께서 '우리 이야기 잘 알아 들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다.

9시쯤 조교 선생님과 실장님께서 먼저 가려고 했다. 그때 조교 선생님이 '우리 이차 가요'라고 말했다. 나는 '이차가 뭐예요?'라고 선생님께 여쭙봤다. 선생님께서는 이차는 파티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러 가는 것이라고 하셨다. 사차 오차를 하게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10시쯤 기숙사로 돌아왔다. 이번 집들이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참 재미있었지만 한국말을 못 알아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다. 앞으로 꼭 열심히 공부하겠다!

여러분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의 집들이에 꼭 참석해서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내 생애 특별한 경험

글 고문 컴퓨터디자인학과 3학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작은 흑백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엄마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자제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살 때 마침내 그 보물이 고장났습

니다. 아빠의 친구 중에는 전기를 수리할 수 있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 일은 내가 맡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리가 끝난 후에 화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

다. 텔레비전을 켜 둔 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외삼촌 댁에 가서 마작을 하고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연기가 자욱이 피어 올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이 폭발했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짐작하던 바였습니다. 텔레비전이 폭발해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벽과 천장이 검게 그을렸고 방안의 모든 물건이 다 타버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 댁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큰 환난 때에 죽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복을 받는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복이 많은 행운아라고 말하지만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내 꿈을 키우는 시간

글 한우신 호텔외식경영학과 2학년

저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상해처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학문을 중시하는 그곳에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하지만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고 때로는 좌절의 순간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시험을 잘 못보거나 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격려 속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동안 겪었던 기쁜 일, 슬픈 일들이 저를 이렇게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고향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어요. 고교 재학 시절에는 특히 어문과목(한국의 국어에 상당하는 과목)을 좋아해서 백일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대학 1학년은 남경 효장대학교에서 한국유학을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냈어요. 제 성격은 외향적이에요. 명랑하고 낙관적이에요. 저는 친구를 사귀기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 주기도 좋아해요. 제 성격이 밝기 때문에 저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귀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는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해요. 물론 어렵

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새 힘과 용기를 얻지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경효장대학교의 여행관리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학과의 한국어 명칭이 호텔관리학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학과의 명칭이 달라서 처음에는 좀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그렇다고 전과를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호텔관리학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저는 서비스업이 제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졸업 후에 호텔 외식부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호텔에 취업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거예요.



잊지 못할 슬픈 추억

글 이소희 국제경영학과 4학년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할 사람은 국어 선생님이예요. 만약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국어 선생님은 너무 착하시고 맑은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책임지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주 우리가 배우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의 집에서 보충학습을 하고 놀기도 했어요. 한번은 우리가 선생님께 과외공부를 받고 심심해서 교외로 소풍 가는 것을 제안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우리는 선생님과 같이 버스를 타고 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자동차가 종횡무진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그 순간에 성 선생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를 감싸안으셨어요. 그 덕분에 나만 손을 다쳤고 다른 사람이 큰 상해는 건 정말 천만다행이었지만 성 선생님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가책을 느꼈고 슬퍼서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그분과 그때의 일

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의 그 사고를 피해가고 싶어요. 회미해지는 옛날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제 다시 걸어 볼 수 없다 하여도 이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을 그때의 사랑이 지가는 자리엔 홀로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대가 다시 올 순 없어요. 영원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성 선생님과 추억, 비록 슬픈 추억이지만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고귀한 사랑의 추억이에요.





에버랜드에서 추억 만들기

글 장빈 국제경영학과 3

이번 주말에는 학교 교수님과 학생들과 같이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할로윈 파티를 한다는군요. 7시반 쯤 차에 탔어요.

우리가 탄 차는 9호차인데, 9호차가 첫 번째로 와서 우리는 즐겁게 탔어요. 차 안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서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10시쯤 에버랜드에 도착했어요.

에버랜드 안으로 막 들어가면 할로윈데이라고 꾸며놓은 게 여기저기 아주 많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호박마차도 많군요. 여기에 있는 호박인형은 무섭지 않고 너무 귀여워요.

먼저 허리케인을 탔어요. 이전에는 이것을 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타서 참 재미 있었어요. 다음 코스는 독수리 요새에 갔어요. 이것은 허리케인보다 더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거의 감고 있었어요. 두 코스 후에 배가 좀 고파서 옥수수 한 개를 샀어요. 맛있었어요.

다음에 지구마일에 갔어요. 여기에서 여러 나라의 작은 모형들을 봤어요.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예쁜 모형들을 봤어요. 이런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일종의 예술적 향수예요. 여기 근처의 건축이 다 동화 안의 것 같아요. 진짜로 어디 환상의 나라를 꿈꾸다가 잠에서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여기에서 10살은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여기에서 동화 속 친구들은 만나고 재미난 놀이기구도 타며 꿈같은 동화 마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로얄จู빌리 캐로셀도 탔어요. 제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됐어요.

선물 파는 곳에 들어갔는데 많이 귀여운 모자와 옷을 입어 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갑자기 어렸을 때 노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감동했고 즐거웠어요.

우리는 사파리 월드에도 갔어요. 곰이 참 귀여워요. 그리고 똥똥해요.

우리는 4시에 모여야 해서 야경을 못 봤어요. 좀 아쉬웠어요. 야경이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국내 최초 우든 코스터를 못 탔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탈거예요.

에버랜드, 사랑해요~~



“힘내요, 힘내! 달려요, 달려!”

글 장위 국제경영학과 3학년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5km 마라톤 대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저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일요일에는 늦게 일어나요. 더구나 그날은 컴퓨터게임 때문에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렇지만 마라톤 대회에 가느라고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했어

요. 그래서 대회 장소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또 잤어요.

9시쯤에 공주에 도착했어요. 운동장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바지를 입었어요. 우리는 운동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람은 계속 차가웠어요. 우리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이야기 했

요. 우리가 준비할 때 노인과 아이가 우리를 봤어요. 우리가 중국인인 걸 알았어요. 친구가 아이에게 “우리 아이와 같이 달리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웃었어요.

10시쯤 시합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아침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었어요. 열심히 달렸지만 5km를 다 못 달렸어요. 제한 시간보다 20분쯤 후에 결승선에 도착했어요. 노인과 아이가 우리보다 빨랐어요. 결승선에 가까울 때 노인과 아이가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했어요. “힘내요, 힘내! 달려요, 달려!”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힘들지도 않았어요. 응원소리가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오후 2시에 버스를 타고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낮에 일이 자꾸 생각나고 웃음이 나왔어요.

“힘내요, 힘내! 달려요, 달려!”

이 말과 이 날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님께

글 왕천 국제경영학과 2학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엄마도 잘 출근하고 계시겠지요? 모두 보고 싶군요!

그날 엄마와 공항에서 헤어졌을 때를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한 출국 하는 것도 급해서 많은 말을 못 했습니다. 당시 저는 떠날 때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이곳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는 즐겁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는 생생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지 공예, 한국의 전통 떡 만들기, 한국 무용 강의 등등. 아무튼 많은 것을 배우길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친구와 같이 국제경영학과 학술제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한국 친구와 같이 연습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국 유학생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과 이야기 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화가 빠르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 못할 때는 아주 괴롭습니다. 다행히 요즘 몇 명의 한국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의 공부시간과 쉬는 시간이 중국에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늦게 자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고향의 날씨가 어때요? 여기는 가을이 되니까 좀 쌀쌀한데 시간이 나면 친구와 같이 등산가서 단풍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며칠 전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대전에 온다는 소문이 있어, 친구들과 한걸음에 달려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만큼 멋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송혜교, 손예진, 현빈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매일 일을 하시며 고생하시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기서 사는 것이 이제 웬만큼 적응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건강 관리는 자신 있습니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또 쓰겠습니다.

10월 26일 왕천 올림



나의 군문화 페스티벌 참가기

글 진관 국제경영학과 2학년

10월 15일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2008계룡 군문화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계룡대에 갔다. 계룡대는 대전에서 멀지 않다. 군대는 우리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한 곳이어서 우리는 무척 기대와 호기심이 많았다. 아침 일찍 점심으로 김밥을 준비하여 출발하였다.

그곳에서는 군대의 엄격한 보다는 일반인과 군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분위기가 있었다. 중·고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들도 오셔서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는 직접 헬리콥터와 탱크와 장갑차를 보고 만져볼 수 있었고 총도 만져보기도 했다. 한국 군인들의 씩씩한 태권도 시범과 육군군악 의장대와 여군들, 군인 비보이 공연

등도 보았다. 이러한 군대의 장비와 군인들의 모습은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감격했다.

한국 군인들의 훈련 체험도 직접 해 볼 수 있었다. 헬기 레펠은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줄타기만 했다. 또 전시관도 있었다. 한국 군인들의 변천사와 군복 등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신기하여 사진도 많이 찍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외출해서 마음이 무척 들떠 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진짜 재미있었다.





중국 소수민족의 풍습

글 이옥정 식품영양학과 2학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번 학기는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겨울 방학이 다가오는 지금 사람들은 설날에 관한 얘기를 종종 꺼내곤 한다.

설날은 우리 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명절로서 많은 풍습이 전해 내려온다. 큰 나라이기에 남방과 북방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우리

들은 춘편을 붙이고 초롱을 달고 폭죽도 터트리며 온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는다. 하지만 이것은 한족(漢族)사람들이 설을 보내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은 자기만의 특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티베트족(西藏族)사람들은 예쁜 옷과 괴괴망측한 탈바가지를 쓰고 음악에 따라 춤을 춘다. 광서성(廣西省), 귀주성(貴州省), 운남성(雲南省), 광둥성(廣東省)에 분포한 장족(壯族)사람은 선달(그믐날)에 먼저 설날에 먹을 밥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내년엔 생활이 부유해진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포의족(布依族)사람들은 선달 그믐날에 가족들과 연못가에 가서 까지 설날을 함께 보낸다. 날이 밝으면 여자들은 앞을 다투어 물을 길러온다. 왜냐하면 맨 먼저 물을 길러오는 여자는 제일 부지런하고 행복한 여자라고 전해 내려오기 때문

이다. 주로 운남성(雲南省)에 포분한 백족(白族)사람들은 설날 때에는 대나무의 마디마다 화약을 넣어 불을 붙인다.

묘족(苗族)사람들은 그날이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놓은 공 모양의 장식물을 던지는데 만약 그 장식물을 못받게 되면 그 벌칙으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기도 한다. 해남도(海南省)에 사는 어족(黎族) 젊은 남자들은 설날만 되면 사냥을 나간다. 잡은 사냥감의 반은 처음으로 사냥감에게 명중시킨 사람이 받게되고 나머지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특히 임신부는 2인분을 얻을 수 있으며 지나가던 사람도 얻을 수 있다.

리수족(黎族)사람은 찹쌀을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에 놓는다. 이유는 내년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게 비는 것이다. 랄호족(拉祜族)사람들도 찹쌀로써 소원을 비는데 리수족과는 달리 찹쌀을 소에게 먹이고 쟁기, 호미 등의 농기구를 옆에 놓는다. 앞으로 주인과 잘 협력할 수 있게 소원을 빈다. 그리고 무라오족(摩梭族)사람들은 산비탈에 모두 모여 산 노래를 부른다.

비록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척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은 55민족이 있으며 제가 소개한 민족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일어버린 지갑

글 마스이 마이코 언어연수 3반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이 마이코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8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부터 얼마 전까지 특별한 일 없이 즐겁게 공부하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난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고 맥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조금 마셨는데도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금방 어지러웠습니다. 친구들과 택시를 타고 기숙사에 돌아왔습니

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택시를 타고 난 다음부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가방을 열어 보았습니다. 쇼핑한 물건은 있었는데 지갑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방 안을 다 찾아보고 옆방 친구에게까지 물어 보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지갑을 꺼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천천히 지갑을 다시 찾아 봤습니다. 그러나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은행에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찰서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을 느끼자! 아자, 아자, 파이팅!!

글 조청 국제경영학과 2학년

9월 1일 오전 8시 50분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공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기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어떻게 될까? 너무 긴장되기도 했지만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림 같았습니다. 구름송이는 마치 솜사탕 같았습니다. 이런 풍경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름송이를 줄곧 봤습니다. 아름다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에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한국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매워서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는 대부분 배주로 만듭니다. 또 깍두기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생한국어 시간에 한복을 입어봐서 모두 한복을 압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복식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서 한복을 한 번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을 때는 규칙이 많습니다.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나이와 신분이 다르면 복식도 다릅니다. 예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릅니다. 태도도 부드럽습니다. 얼굴도 선량해 보입니다.

우리는 행복함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에버랜드놀이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금요일을 지냈

습니다. 제일 아슬아슬한 놀이기구는 제트코스터입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좋기도 했습니다. 제트코스터를 탈 때는 너무 긴장되어서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저는 줄곧 날카롭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즐거운 추억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배워서 그렇게 노래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생활이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저에게 많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저는 식구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참 건강해요,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좋은 딸이 되고 싶습니다. 식구들도 꼭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 한국 생활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생활이 반드시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아자, 아자, 파이팅!”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아름다운 미래가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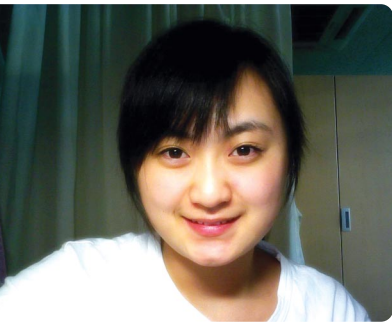


제 옆방 친구는 잃어버린 지갑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라도 경찰서에 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일본 친구가 같이 경찰서에 가 주었습니다. 경찰에서 가서 경찰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찰서에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서툴지만 한국어로 열심히 설명하는 제 말씨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아저씨께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 알려 주셨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 있는 돈도 아까웠지만 지갑은 선물을 받은 것이어서 저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갑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말고 기숙사로 뛰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제 지갑을 찾아서 돌려 주셨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제 지갑을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일본 친구는 저에게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경험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슬프고 기분이 나빴지만 다시 찾았을 때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유학 생활은 짧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문화체험

글 임배리 국제경영학과 2학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느낀 점이 있는데 먼저 한국과 중국의 문화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자 위에 앉아서 먹지만 한국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한국에 왔을 때 아주 힘들게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으면 따뜻해서 좋아요.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언제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우리 모두 손을 흔들어 인사해요. 한국에서는 친구 사이에 이렇게 인사해도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른께는 그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세 번째로 음식에 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를 먹어요. 그리고 음식은 대부분 삶은 것이 많아요. 중국음식은 대부분 볶은 것이나 찐 것이 많아서 처음에는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삶은 음식이 몸에 좋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매우 음식도 계속 먹으니까 익숙해졌어요. 특히 떡볶이를 좋아해요. 네 번째 중국에서는 길을 건널 때 차가 먼저 가고 나서 사람이 건너가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차들이 기다려 줘요. 이 점은 우리들도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 차이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말하고, 다음은 저의 한국 생활에 대해 말할게요. 한국생활은 매우 재미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했어요. 먼저, 우송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날 밤 학교에 많은 연예인들이 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승기와 앤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일은 한남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의 한국어 쓰기 대회에 참여한 것이예요. 4시간 동안 “어머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쓰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훈련이었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활동에 꼭 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5000m 마라톤에 참여했어요. 비록 놀면서 달리기를 했지만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에버랜드 문화체험이 기억에 남아요. 그 체험은 아주 즐겁고도 스릴 있는 여행이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77°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아주 스릴 있었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인생에 단 한 번만 타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회전목마와 우주유람차도 탔는데 아주 낭만적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알고 배워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해하고 싶어요.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보고 싶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국의 가족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내 한국 생활

글 고양 국제경영학과 3학년

저는 9월 3일에 한국에 왔어요. 벌써 두 달쯤 되었어요. 중국에서 한국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즐겁게 지냈어요. 우리 대학교는 학교 시설과 기숙사도 좋고 교수님도 친절해요. 특히 우리 한국어 교수님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처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와서 너무 불편했어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전공과목을 할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잘 표현할 수 없었어요. 조금 우울했지만 교수님께서 한 학기가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안심되었어요. 어렵지만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우리 대학교 축제였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마음껏 놀았어요. 축제를 축하하는 뜻으로 우리 대학교는 앤디와 이승기 등 가수들을 초청했어요. 저는 처음 앤디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봐서 너무 너무 흥분했어요. 앤디는 정말 귀여웠어요. 특히 그 웃음 매력적이었어요. 밤에 기숙사에서 찍은 사진을 반복해서 봤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달에는 우리만 친구들과 같이 한남대학교에 가서 한국 어대회에 참가했어요. 상을 못 땀는데 즐겁게 지냈어요.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친구들이 한국어를 다 잘 말해서 아주 부러웠어요. 나도 이렇게 유창하게 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

각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김치를 처음 먹을 때 입에 맞지 않지만 요즘 매일 김치를 먹어야 돼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장도 좋아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한국에서 아름다운 지방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전 빼고 어느곳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아쉬워요. 기회가 있으면 꼭 여기저기를 찾아서 구경해 볼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울 방학을 기대하고 있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이번은 처음 한국에 갔다 와서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자주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요.

이상은 지금까지의 제 한국 생활이에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싶고 여기저기도 구경하고 싶고 한국스타도 많이 보고 싶어요. 특히 동방신기 오빠들은 꼭 볼 거예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지낼 거예요. 힘내라! 아자!





내 고향 남경

글 주호진 국제경영학과 3학년

저는 남경사람인데 20년 동안 남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경은 참 좋은 곳입니다. 옛날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그곳에서 창건했어요. 남경을

여행하려면 명효능이랑 중산능이랑 부자묘랑 형무호를 한번 구경해야 해요.

명효능은 명태조 주원장의 능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산능은 중국 국민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주산 선생의 묘입니다. 보통 남경에 도착하시면 명효능과 주상능을 묶어 돌아보는 게 좋아요. 형무호는 남경시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호수물이 맑아서 경치도 좋거든요.

남경에서 부자묘도 유명한 곳입니다. 공부자는 공자에 대한 존칭입니다. 부자묘에서는 중국 전통 음식도 있고 현대 음식도 있어요.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옷을 살 수 있고 배를 저을 수도 있어요. 휴가 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부자묘에 와서 구경해요.

유학생활과 친구

글 마치코 영어학과 3학년

한국에 와서 이제 9개월 지났어요. 이제는 한국생활에 적응했는데 처음에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는 작년 여름방학 때 일본대학에서 어학연수로 3주일 동안 우송대에 왔었는데 그 때 전연희 선생님, 강지영 선생님, 김하운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정말 상냥하셔서 헤어질 때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올해 다시 여기로 공부하러 왔을 때 맨 먼저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 정말 기쁘고 반갑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들었던 한국어 독해, 회화 수업은 당연히 중국학생밖에 없어서 저는 정말 걱정됐어요. 다들 재미있게 수업을 듣는 것 같은데 저만 일본인이라 어떡하면 좋을지 정말 몰라서 처음에는 물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반의 중국학생들이 말을 걸어 주어서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선생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거나 일본에 대해 질문

제 집은 시내에서 가까워 주말이면 항상 친구랑 같이 시내에 갑니다.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남경에는 한국처럼 노래방이 많아서 사람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기 좋아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축하 공연을 끝낸 후에 친구와 같이 노래방에 가서 밤새워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 도시는 어디나 다 비슷할 텐데, 그래도 남경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빌딩을 많이 짓습니다. 특히 20층 이상의 빌딩이 많아요.

또한 남경은 날씨가 좋지 않아요. 일 년 내내 기후 차이가 너무 커요.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요. 기온이 항상 38도쯤 될 거예요. 하지만 학교 기숙사 천장에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 기숙사에서 잠시 머물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남경의 경치는 더욱 아름다워져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온 도시가 참 아름다웠어요. 또한 남경은 하루에도 날씨의 변화가 많아요.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는데 정오 시간에는 너무 더워요. 제 고향으로 꼭 놀러 오세요.

을 해 주시거나 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재미있어 지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제 전공은 영어인데 영어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였어요. 영어학과에도 일본학생은 저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걸어서 친구를 만들면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거기서도 친구가 많이 생기고 수업을 듣다가 재미있어졌어요.

유학이라는 것은 친구가 있어야 정말로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슬플 때 옆에 있어주고 얘기도 들어주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국어가 서로 달라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짜 친구예요. 제 주위에는 다행히 이런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한국생활이 너무 좋아요. 모국어가 달라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한국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니깐 한국어 능력도 늘어서 좋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인생 최고의 순간’이 있으세요?

최가위 _컴퓨터디자인 4학년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은 고등학교 때 디자인실에서 여자 친구를 처음 만날 때입니다. 그때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쌓여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여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저를 바닷가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크게 외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나요? 물론이지요! 그 친구는 제 인생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나 _컴퓨터디자인 3학년

저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모든 희망을 저에게 거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수님들께 인정받고,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추강 _정보매 샵마스터 경영 2학년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 많지만 저는 한국에 왔을 때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때는 흥분했지만 책임감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생활과 관리를 해야 했어요.

그 전에 저는 그냥 왕자같이 위기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는 모든 일을 제가 다 해결해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진짜 큰 다리를 건넜어요. 앞으로 매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이겨 낼 것입니다.



장덕립 _IT경영정보 4학년

저는 작년에 만리장성을 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작년에 부모님과 형과 저는 만리장성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대단한 관광지이지만 작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기세가 웅장한 만리장성에 올라간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리장성에 올라 하늘 가득한 구름과 아름다운 산을 보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A vertical photograph showing a person's arm and hand reaching out towards a large, curved, green-lit structure, possibly a car's interior or a futuristic display. The person is wearing a patterned shirt.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 Tel : 042)629-6697, 629-6698